이번주 집중호우… 농작물 비 피해 대비를

27일까지 남부지역 중심 최대 80mm 기상청 예보 따라

논·밭 물꼬 정비… 병해충 발생 상황시 적용약제로 방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30~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당부했다.

지난 20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주기적인 강약을 반복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중순 중국(후베이성 473mm)과 일본(후쿠오카 905mm, 나가사키 1,082mm)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국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벼의 낟알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며, 과수는 고유의 색이 들지 않고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벼의 경우에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흙이 깎이거나 쓸려 내려가기 쉬운 곳은 비닐 등으로 덮어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한 도열병과 세균벼알마름병 등 발생여부를 잘 살피고 필요 시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밭작물은 토양에 수분함유량이 높아지면 작물이 썩거나 병 발생이 쉽기 때문에 밭고랑과 물길을 정비하고, 비가 내리기 전에 예방 약제를 줘야 한다. 알이 여물고 있는 콩은 노린재류가 없는지 잘 확인하고 발견시에는 적용약제를 아침 일찍 또는 해질 무렵에 뿌려준다. 해충의 흔적이 있거나 병든 고추는 발견 즉시 따내고 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폐기한다.

또한 빗물이 과수원에 고이지 않도록 물길을 정비하고, 병든 과실이 보이면 바로 따내어 땅에 묻는 것이 좋다. 적용약제를 이용한 방제는 과실 수확기를 고려해 실시한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설치한 지지대와 덕 시설을 점검하고, 수확기에 다다른 과수는 비가 그친 후 2~3일 후에 수확하여 당도를 높이도록 한다.

노지작물은 물길을 깊게 파 습해를 예방하고, 고랑이나 이랑에 덮은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땅에 고정시킨다.

아울러 무너질 우려가 있는 축대는 바로 고치고, 축사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변 물길을 정비한다. 축사 내 전기시설이 바람이나 비로 누전이 되지 않도록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농기계는 바람이 잘 통하고 물에 잠길 위험이 없는 곳으로 옮기고, 방수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물길정비나 농작업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듣고, 많은 비가 예고됐을 경우 주택이 낮은 지대 또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사전 점검,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등을 휴대전화 문자 전송 또는 온라인 등을 이용해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외식업협회 회원 따뜻한 금융지원

전북은행, 외식업중앙회 전주지부와 포괄적 협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지부는 지난 19일 전북은행 본점 9층에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지부는 지역 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층 개선된 금융 서비스 제공과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 설 예정이며 전북은행은 지속적으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클리닉 센터'에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지부 소속 4300여개의 업주를 대상으로 정부보증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담 및 여신지원과 건전한 부채관리(Debt Management Service) 서비스 제공으로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신용대출로 전환해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용등급 관리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 양순기 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소상공인 외식업 점주의 금융지원이 확대되길 바라며, 지역대표 단체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권오진 부행장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이번 협약을 통해 필요한 포용적 금융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우리 과채류의 매력 모두에게… 널리…

농협경제지주, 콘텐츠 챌린지 공모

오이·토마토 등 소재 동영상 등 응모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오는 10월 24일까지 국산 과채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2021 우리 농산물 과채류 매력 알리기 콘텐츠 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상금 1,200만원 규모로, 8개 과채(오이, 애호박, 가지, 풋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참외, 딸기)를 소재로 응모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제작한 동영상, 카드뉴스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함께 알고, 함께 나누는 국산 과채류의 매력'이며, 국산 과채 품목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또 응모자의 작품의도가 구체적이고 작품에 잘 드러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4일까지이며,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구글폼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기타 해시태그 이벤트, 참가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과채류챌린지.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작 발표는 11월 초에 예정돼 있으며, 대상 수상자(1명)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부상으로 농촌사랑상품권 200만 원이 주어지고 우수상 수상자(3명)에게는 농협중앙회장상과 농촌사랑상품권 각 1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40개 작품이 시상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산 과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다"면서 "우리 농산물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온라인마케팅 컨설팅'이 8월 중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마케팅 컨설팅' 한창… 마을기업 지원 일환

경진원, 컨설팅 대상 7곳 중 4곳 사무장 대상 컨설팅 완료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온라인마케팅 컨설팅'이 8월 중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단위의 기업을 뜻한다. 도내 마을기업은 104개소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마케팅 컨설팅' 프로그램은 마을기업 경영에 있어 온라인마케팅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기획됐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마케팅을 시행한 전북도 마을기업 39개소 가운데 51%의 기업이 매출 상승을 이룬 바 있다.

현재 컨설팅 대상 7개 마을기업 중, 4개 기업 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컨설팅이 완료됐다. 해당 컨설팅은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기업 소개 PPT 제작' 등 마을기업이 애로를 겪는 콘텐츠마케팅 부문에 대한 컨설턴트의 조언과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컨설팅에 참여한 마을기업 사무장들은 지난달 경진원에서 진행된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교육 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 마을기업 사무장들의 온라인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4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과정은 ▲콘텐츠마케팅의 개념과 적용 ▲눈에 들어오는 사진찍기 ▲끝까지 읽히는 상세페이지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진원은 내년까지 온라인 역량을 갖춘 마을기업 사무장 비율을 50%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후 온라인마케팅 관련 사무장 간담회와 CS(고객서비스)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마케팅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한 고창이엠푸드(영) 사무장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온라인마케팅의 중요성이 계속되리라 생각하여 이번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며 "우리 마을기업의 장점인,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널리 홍보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스타소상공 공개오디션' 도민평가단 200명 모집

내달 7일까지… 10일 온라인 오디션 진행

전라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2021 스타소상공인 공개오디션'의 도민심사위원 200명을 모집한다.

스타소상공인은 올해 10번째 개최되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공개오디션 형식의 경연을 통해 도내 대표 스타CEO를 발굴하고, 경영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으로 스타소상공인을 육성한다.

공개오디션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본선에 진출한 6개 업체 대표가 나서 업체를 소개하고, 전문심사위원과 도민평가단이 기업의 아이템과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대상과 최우수상을 선발한다. 스타소상공인에 참여한 업체에는 총 4,500만원의 경영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민평가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관이 제한된다. 경진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오디션을 라이브 생중계하며, 도민평가단은 생방송을 시청하고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도민평가단은 오는 9월 7일까지 모집하며, 만 18세 이상의 전라북도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 중 2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1588-0700)에 문의할 수 있다.

스타소상공인 공개오디션은 9월 중 J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서부산림청, 규제혁신과제 발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규제 완화 등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주요 규제혁신 과제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산림복지전문업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이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사례로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되었으며, 산림청 보유 임업기계장비를 재난 상황 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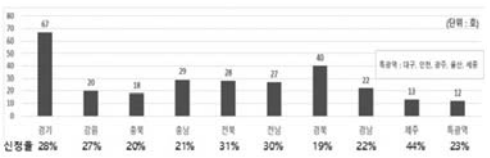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규제개선에는 국유림 대부료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임야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으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에 조경분야가 추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첫 도입 41% 신청

전북의 산란계 농장 대비 신청률 31%… 농식품부, 올 시범 결과 분석 타 축종으로 확대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접수 결과,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41%(3024만수)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현황〉



농가 수로는 25%(276호)이며, 이는 방역시설 미흡, 과거 발생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 중 46%(97호)가 신청했고, 100만수 이상 농가는 100%, 100~50만수 농가는 60%가 참여하는 등 시설 여건이 좋은 농가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수 미만 중·소규모 사육 농가 중에는 20%만이 신청해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란계 농가가 있는 시·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신청해,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산란계 농장 대비 신청률은 31%였다.

이처럼 질병관리등급제도 시범사업에 농가 참여율이 높은 것을 보면, 향후 방역체계가 실질적인 방역 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질병관리등급제가 정착되면, 방역체계를 갖춘 농가가 가금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질병관리등급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 위험도가 낮아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며, 질병관리등급 부여 농가가 10월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 안내서를 활용해 방역 취약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산란계 농장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질병관리등급제를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중기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특별공급예정인 '완주 이서 양우내안애 퍼스트힐'은 혁신도시지역주택조합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653-4번지 일대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4세대(확정추천 3세대 + 예비추천 1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